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소현* · 신동수** · 권자연*** · 김귀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인간발달단계에서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필수적인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지식이 기반이 된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써, 세계화된 정보들을 한눈에 입수할 수 있는 매우 신속하고 다양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절한 자아발달 및 자아 정체감의 확립을 하게 되며 그 과정 가운데 다각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인터넷 정보네트 위킹을 중심으로 한 관계들은 지금 21세기의 또 다른 혁신적이고 매우 빠른 대인관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환경속에서 확립되어지는데, 특히 대인관계의 채널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Choi & Shin, 2003). 특히 간호학과는 일반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신세대의 다양한 대인관계뿐 만아니라 비간호학과에 비하여 교육과정도 더욱 엄격하고,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임상실습, 그리고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대인관계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Park, Bae, & Jeong, 2002).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역

할, 책임, 사명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시기의 필수적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내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다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Oh, 2003), 결국 대인관계, 자아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Han, 2004).

대인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한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는가 또는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심리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Choi & Shin, 2003). 자아 존중감이란 자기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전문간호사가 되기위해서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한 자신과 세계를 정확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Park 등, 2002). Wood 등은 자기효능감을 ‘개인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Kim & Ruy, 2002). 자기효능감은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전임강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졸업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된다(Park & Kim, 2003).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하게 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바람직하면 건전한 성격을 갖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대인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성장, 발달은 방해로 받아 고독, 불안, 공포, 절망,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Ruy, 2002). 특히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성인기에서의 긍정적인 자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몇 편 있으나(Oh, 2003; Park 등, 2002),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함께 자존중감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성인초기의 건강증진 개념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자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1) 대인관계(relationship)

대인관계란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사람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를 의미한다(Swensen, 1973). 본 연구에서는 Schein과 Gucme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2) 자존중감(self-esteem)

자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Taft, 198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를 특정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이며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99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두 대학에 재학중인 접근가능한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특별학사과정 3,4학년 학생으로 총 3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판단이 일관성이 있고 명료한 자
- 2) 현재 정신병이나 규칙적인 약물복용 경력이 없는 자
-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대인관계 측정도구

Schein과 Gucme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한 도구로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0이었다.

2) 자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1이었다.

3)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995)이 번안한 도구로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0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였으며 서울, 경기도지역에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총 384부중에서 제대로 작성되지않은 설문지 31부를 제외한(회수율 92%) 353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변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서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두 대학에 재학중인 접근가능한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특별학사과정 3,4학년 학생으로 연구대상자를 하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은 여학생이 352명으로 99.7%을 차지하였으며 남학생은 1명으로 0.3%을 차지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25세이하가 201명으로 5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년은 일반학사과정 3학년이 42.7%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306명으로 86.7%를 차지하였고, 흡연상태는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348명, 98.6%). 용돈은 50만원이하가 308명으로 87.3%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학점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271명(76.8%)으로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2.4%가 만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중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특별학사과정 3,4학년 학생간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p=.579), 연령(p=.176), 결혼상태(p=.304), 흡연상태(p=.459), 용돈(p=.809), 학점만족도(p=.831),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p=.214) 모두에서 p<.05수준에서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3)

특성	영역	N	%
성별	여학생	352	99.7
	남학생	1	0.3
연령(년)	20-25	201	56.9
	26-30	122	34.7
	31-35	18	5.1
	36-40	9	2.5
	41 이상	3	0.8
학년	특별학사과정 3학년	34	9.6
	특별학사과정 4학년	49	13.9
	일반학사과정 3학년	151	42.7
	일반학사과정 4학년	119	33.8
결혼상태	예	43	12.2
	아니오	306	86.7
흡연	예	4	1.1
	아니오	348	98.6
용돈(원)	기타	4	1.1
	500,000 이하	308	87.3
	500,001 - 1,000,000	40	11.3
학점만족상태	1,000,001 이상	5	1.4
	예	82	23.2
	아니오	271	76.8
대학생활만족상태	매우 만족한다.	17	4.8
	만족한다.	168	47.6
	불만족한다.	162	45.9
	매우 불만족한다.	6	1.7

2.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2>.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는 평균 90.08점으로 최소 43점 최대 114점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29.69점으로 최소 12점 최대 40점을 나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평균 79.29점으로 최소 47점 최대 105점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556, p=.000$),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r=.526, p=.000$), 그리고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r=.443, p=.000$)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41세이상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학사과정 3학년이 나머지 학년보다 대인관계 점수, 자아존중감 점수 및 자기효능감 점수가 각각 더 높았다. 학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대인관계 점수, 자아존중감 점수 및 자기효능감 점수가 각각 높았다. 대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대인관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논 의

1.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학생 시기는 부모의 애착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동료집단이나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고 부모의 책임 권한과 통제가 점차 감소되면서 스스로의 목표나 가치를 탐색하고 새로운 자아개념의 구조화와 만족스러운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탐색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으로 개인의 삶을 위협하게 되고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Ruy, 2002). 대학생시기는 대인관계의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 가족, 친구, 이성, 선후배, 사회동료, 특정영역에서의 만남의 대상등 많은 대상과 대인관계를 맺어 갈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 이러한 대상들과의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는 사람들의 생존뿐 만 아니라 적응과 행복의 전제조건으로(Swensen, 1973) 인간의 자아와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한다(Ruy, 2002). 그러나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을때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Kweon(1998)과 Ruy(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대인관계가 넓어진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제한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대학에서는 학과, 동아리, 동문회, 동향회 등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선후배, 교우관계가 이루어진다. 둘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과 다르게 중, 고등학교에서와 같이 정해진 과목들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렇지만 중, 고등학교 때처럼 지정된 자리에서 교복을 입고 규칙과 규율에 맞추어 생활하지는 않는다. 모든 부분에서 자유와 자율이 주어진다. 대학에서의 대인관계의 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부와 동아리와 같은 소속이 있겠으나 이 또한 응집력과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 결국 대학생 개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형성이 궁극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학생활 초기에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대학생활동안 내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한다. 대학생이 되면 이제까지 중요한 대인관계

<표 2>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N=353)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1		
자아존중감	.526 (p=.000*)	1	
자기효능감	.443 (p=.000*)	.556 (p=.000*)	1
M±SD	90.08±10.67	29.69±3.71	79.29±10.03
Range	43.00 - 114.00	12.00 - 40.00	47.00 - 105.00

*p<.05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N=353)

특성	영역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M(SD)	F,t	p	M(SD)	F,t	p	M(SD)	F,t	p
성별	여학생	90.11(10.67)	1.040	.299	29.69(3.72)	-.083	.934	79.30(10.03)	.628	.531
	남학생	79.00(-)			30.00(-)			73.00(-)		
연령 (년)	20-25	91.23(10.42) A	4.744 A>B	.001*	29.97(3.94)	.820	.513	78.89(10.10)	1.102	.356
	26-30	87.32(10.97) A			29.31(3.50)			79.11(10.04)		
	31-35	93.72(6.14) A			29.72(2.88)			83.83(9.74)		
	36-40	97.22(7.51) A			29.00(2.69)			80.88(8.99)		
	41 이상	82.33(17.78) B			28.00(2.64)			81.33(7.02)		
학년	특별학사과정 3학년	94.56(8.59) A	2.552 A>B	.055*	31.97(3.64) A	5.187 A>B	.002*	82.58(11.89) A	2.928 A>B	.034*
	특별학사과정 4학년	89.29(9.63) B			29.00(2.86) B			78.16(9.05) B		
	일반학사과정 3학년	90.21(10.80) B			29.56(3.97) B			77.96(9.17) B		
	일반학사과정 4학년	88.97(11.21) B			29.48(3.51) B			80.49(10.61) B		
결혼상태	예	91.77(9.05)	1.169	.312	29.95(2.80) A	3.345 A>B	.036*	81.39(9.01)	1.363	.257
	아니오	89.92(10.87)			29.71(3.80) A			79.04(10.03)		
	기타	84.25(10.53)			25.00(3.16) B			75.25(18.15)		
흡연	예	104.00(-)	1.453	.235	35.00(-)	4.306	.014*	87.00(-)	.620	.539
	아니오	90.11(10.65)			29.72(3.68)			79.31(9.94)		
	기타	84.25(10.53)			25.00(3.16)			75.25(18.15)		
용돈 (원)	500,000 이하	90.36(10.39)	1.263	.284	29.80(3.68)	1.872	.155	79.39(9.92)	1.452	.235
	500,000 - 1,000,000	87.65(12.80)			28.67(3.55)			77.70(10.69)		
	1,000,001 이상	92.40(7.50)			30.80(6.26)			85.40(10.33)		
학점만족 상태	예	92.44(9.64)	2.296	.022*	30.69(3.78)	2.819	.005*	81.23(10.04)	2.007	.045*
	아니오	89.37(10.88)			29.38(3.64)			78.70(9.97)		
대학생활 만족상태	매우 만족한다	89.18(12.48) A	7.092 A<B	.000*	31.23(5.49) A	8.725 A>B	.000*	80.00(11.93)	2.160	.092
	만족한다	92.71(8.89) B			30.49(3.23) A			80.62(9.55)		
	불만족한다	87.65(11.63) A			28.82(3.71) A			77.92(10.26)		
	매우 불만족한다	84.67(7.50) A			26.33(3.72) B			76.83(7.57)		

*p<.05

교류자였던 가족과 지지와 그 중요성은 점차 친구, 이성친구, 선후배들의 지지에게로 그 중요성이 옮겨가는 양상을 드러낸다. 다섯째, 대학에서는 이성교제가 활발해진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드러난 하나의 독특한 양상으로 사이버 대인관계의 대두를 들 수 있다(Ruy, 2002).

최근의 인터넷의 확산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양상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평범한 형태이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학업부담이 줄어들고 자유롭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상의 커뮤니티나 동아리 활동, 채팅 등이 매우 활발한 대인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대인관계는 컴퓨터를 매개수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대인관계 형태와는 달리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대인관계의 특성은 간호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과 동시에 간호대학생이기 때문에 오는 과도한 수업시간,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는 병원의 정기적인 임상실습, 국가고시의 판문 등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평균 90.08점으로 중간 점수(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특별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으로 간호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학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각각 29.69점, 79.29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001)의 연구에서 각각 27.67점, 63.30점과 Oh(2003)의 연구에서는 각각 28.35점, 62.75점으로 나타난 두 연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도 긍정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 과 Shin(2003)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대학생이 부모를 수용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Park과 Kim(2003)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성취만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혀 건강한 삶의 질의 성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Kim과 Ruy(200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전한 바람직한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Ruy(2002)의 연구에서

건전한 대인관계는 긍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이나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자아상이나 자아개념 형성은 개인의 생활속의 다양한 대인관계속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립된 개인으로 자리잡으며 자신을 개발하는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긍정적인 피이드백을 증가시켜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본 연구의 결과처럼 연령은 대인관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41세이상으로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와 Shin(2003)의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연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학년은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학년중에서 특별학사과정 3학년이 특별학사과정 4학년과 일반학사과정 3,4학년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결과는 학사학위를 가지기위해서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이미 진출한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자하는 열의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좋고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아졌고 또한 공부와 자신의 생활속에서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 학년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Oh(2003)의 연구에서 학년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인의 학점에 만족하는가가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대학생생활만족도는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결과로 학점에 만족을 느끼며 대학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좋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결과는 Park 등(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생활만족감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들이 학점과 대학생활에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들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중 가족, 친구, 애인등과 같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Park와 Kim(2001)의 연구와 Park 등(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존감은 종교, 전학기 성적, 가정형편,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감, 취업동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학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감, 취업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학업, 취업 스트레스가 낮고, 문제중심적 대응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Oh(2003)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중 학년, 연령, 성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위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관계 만족의 세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즉 올바른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Choi와 Shin(2003)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학생들은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자기효능감의 증진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자기성장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Shin, 2003).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Taft, 1985). 또한 자신의 존재와 가치, 건강, 외모, 기술 및 성에 대한 느낌이다(Oh, 200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2)의 연구에서 성격이 자아존중감과 상호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ik(1998)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성격과 상황에 대한 적응정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우리의 삶은 이러한 효능감에 의해 유도된다(Park & Kim, 2003).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

한 개인의 신념과 관계가 있다. 이와같이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인식과 자아정체감 및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세계화, 정보화의 구조속에 있는 우리사회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초기성인기인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인식, 자아정체감, 신념 및 대인관계 구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속에서 가족으로부터 이제 성인이라는 인식으로 쏟아지던 관심이 철수하고 학교로부터 자율이라는 환경속에서 혼자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애매한 시기에 있는 우리의 간호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이끌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성인초기의 건강증진 개념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간호대학 두곳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도구는 Schlein과 Gucme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한 대인관계 측정도구(Cronbach's $\alpha=.720$)와 Rosenberg가 개발하고 Jeon(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Cronbach's $\alpha=.731$)를, 그리고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Hong(1995)이 번안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Cronbach's $\alpha=.810$)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1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는 평균 90.08점으로 최소 43점 최대 114점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29.69점으로 최소 12점 최대 40점을 나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평균 79.29점으로 최소 47점 최대 105점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r=.556$, $p=.000$),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r=.526$, $p=.000$), 그리고 대인관계와 자기 효능감($r=.443$, $p=.000$)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중 연령, 학년, 학점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이시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바르게 확립,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연령, 학년, 성격, 적응정도 및 만족정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Baik, S. H. (1998). *The comparative study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before and after plastic surger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g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hoi, M. G., & Shin, E. Y. (2003).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4), 337-350.
- Hong, H. Y. (1995). *A study on completeness,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eon Se No Chong*, 11, 107-129.
- Kim, H. J., & Han, J. C. (2004). The Effects of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Self-Conscious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Undergraduate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2), 324-334.
- Kim, Y. R., & Ruy, H. H. (2002).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Learners' Self-Efficacy, Instructional Motivation and School life-Related Coping. *Human Science*, 10, 93-113.
- Kweon, S. M. (1998). *Psychology of relationship*. Seoul: Hak Ji Sa.
- Moon, S.M. (1980). *A study on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Kyung Sang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19, 195-204.
- Oh, H. K. (2003). A Stud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Adult Nursing*, 15(2), 278-285.
- Park, H. E., & Kim, G. W.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Research*, 19(1), 7-23.
- Park, H. S., Bae, Y. J., & Jeong, S. Y.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ological Nursing*, 11(4), 621-631.
- Park, Y. S., & Kim, Y. C. (2003).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1), 37-5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y, J. H. (2002). A Study of Guidance and Relationship in Students, College. *Student Life Research in Kang Nam University*, 9, 83-95.
- Sherer, M., Moddo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wensen, C. H. (1973).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 Glenview Foreman & Co.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Abstract -

Key concept :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Self-efficacy

A Study of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Sok, Sohyune R. · Shin, Dong-Soo***

*Gwon, Ja Youn*** · Kim, Kwuy-Bun**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elf-efficacy. **Method:** Design was descriptive correlative study, an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3 persons who ar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Measures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surement (Cronbach's alpha=.720), self-esteem measurement (Cronbach's alpha=.731),

and self-efficacy measurement (Cronbach's alpha=.810).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04 to January, 2005.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C+ on each aim of this study. **Result:**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In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①, self-esteem②, and self-efficacy③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①②r=.526, p=000; ①③r=.443, p=000; ②③r=.556, p=000). 2. In differenc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grade, satisfaction on credit, satisfied life in the University. **Conclusion:** Further needs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positivel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at may effect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wuy-Bu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314 Fax: +82-2-961-9398
Email: kuikim@khu.ac.kr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h.D,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